

“고용도 출산도 세밀한 통계 바탕해야 효과적 정책 가능”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

나이팅게일은 그저 간호사들의 나이팅게일 신서에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1853-1856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영국·프랑스·사르데냐 연합군 간 전쟁)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영국군의 전사자와 부상자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부상이나 치료나 병원의 위생 상태에 의해 사망했음을 통계로 정리했으며, 그녀의 노력 덕분에 영국군 부상자의 사망률이 40%대에서 2.2%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녀가 영국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작성한 그래프, 장미 도표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858년 영국 왕립 통계 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녀는 통계학에 대해 “오직 통계만이 국가를 바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신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을 공부해야 한다. 통계학의 힘으로 신의 의도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집단지성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질적 기술(量的·質的 記述)을 반영하는 숫자를 통계라고 한다. 통계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왔는데, 표본 조사나 전수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확률·비율·대푯값·분산·표준편차 등으로 분석해 누구나 알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성자



·작성 시기·작성 방법·대상·대상의 존재 장소 등에 따라 그 신뢰도나 정확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또 통계 조사 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질문·응답 역시 매우 중요하다.

매일 수없는 현상들과 마주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 정부기관인 통계청의 조사 결과다.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을 만났다. 200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진주가 고향이며, 전공은 인류학으로, 지난 1월 27일 부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남지방통계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급변하는 경제·사회 속 모든 정책 기초자료, 통계 갈수록 중요
젊은층 유출 심각한 호남, 청년 안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필요

▲통계청 산하 5개 지방통계청 가운데 하나다. 광주, 전남·북 및 제주지역을 포괄하는 지역통계센터로, 국가통계생산과 지역정책에 필요한 지역통계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농어업조사 등 3가지 분야의 통계 조사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분석, 발표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정책 개발에 필요하거나 지자체가 원하는 통계도 생산하고 있다.

-통계, 왜 중요한가.
▲통계는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초자료일 뿐 아니라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복잡한 현상들을 간단한 수치 몇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통계다. 고용률·실업률 등 몇 가지 지표만으로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다. 예를 들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야 올라가는지 통계적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의 절감과 정책의 정교한 수립, 근거에 기반한 정책의 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아직 통계가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만이 강조되고 있어 정책의 정교한 수립을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통계적으로 사전에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매일 통계와 마주하는데, 최근 가장 인상 깊은 통계는.

▲지난 6월 13일 ‘호남·제주지역 사회지표로 본 청년의 삶’이라는 기획 자료를 낸 적이 있다. 결혼, 가족, 일자리 등에 관해 이 지역 청년들의 생각이 과거 1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한 것이다. 광주만 살펴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비중은 증가했다. 결혼 후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늘었고, 그와 맞물려 자녀 입양 의사도 감소했다. 이 통계 전반을 요약해 보면, 청년들이 개인의 삶과 행복에서 결혼이나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인식 변화에 주목해 정책을 꼼꼼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의 통계가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해 다른 점이 있다면.

▲인구 고령화 및 지방소멸 현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호남에서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우선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경상·충청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순유출은 20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면, 60대에서는 광주

를 제외하고는 순유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젊은이들은 나가고 귀농·귀어하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청년 순유출, 귀농 및 귀촌 등 인구이동에 관한 분석과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층 통계를 제공해 지자체들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호남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젊은층이 교육·직장 문제로 유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소비층인 20~50대 사이 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성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 내에서 안착할 수 있을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살기 편한 여건을 만들고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공감한다. 최근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산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좁은 국토에서 서울, 수도권만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제 동기도 서울에서 출퇴근에 3-4시간씩 쓰며 살다가 세종시로 대부분 이사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통계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고 한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통계는.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뿌리산업 첨단기업 전환 60억원 지원

69개사 참석 사업설명회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지난 17일까지 이틀간 본원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24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전남 뿌리산업의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고도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및 15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들 지역의 뿌리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모두 60억원으로, R&D지원프로그램(총 6개 분야)의 경우 최소 1억8000만~2억 5000만원까지, 비R&D지원프로그램(총 15개 분

야)의 경우 최소 300만~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8월 9일까지다. 오익현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 뿌리기업의 기술 고도화,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최적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역 기업이 보유한 뿌리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고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신보 ‘하나 협약보증’ 150억 규모로 확대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지난 2월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원 출연에 이어 추가로 5억원을 출연받아 ‘하나 THE 중저신용 협약보증’을 15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신보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2월 ‘하나은행 특별출연 하나 THE 중저신용 협약보증’을 75억원 규모로 시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전남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경우 전남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이더라도 중복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남신보에서 전액 보증한다. 또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할 경우 3.0~3.5% 이자지원으로 고객은 1.8~2.6%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신보 이강근 이사장은 “고금리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 투자 10년후 보고 긴 안목으로 결정해야”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특강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실행해야 하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9일 오전 광주 서구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제1165회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에서 ‘하반기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전략, 올 하반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환율 변동과 투자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오 본부장은 “AI 산업에 투자하려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선행조건”이라며 “AI를 거품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10년 후를 내다보면 절대 거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관련된 산업들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본부장은 특히 올 하반기 미 대선 결과가 투자 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사실상 확정 짓고 금융시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트럼프는 수출 기업에 대해 당장 이후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화 약세를 유도해 미국의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로도복권 (제 112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0	11	17	28	34	22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369,567,660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0,600,069	107
3	5개 숫자일치					1,382,625	3,142
4	4개 숫자일치					50,000	154,322
5	3개 숫자일치					5,000	2,542,398

광주신세계, 헬로키티와 ‘서머 백캉스’ 이벤트

광주신세계는 최근 장마와 폭염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백캉스’(백화점+바캉스)가 인기를 끌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과 인형뽑기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고객 잡기에 나선다.

광주신세계는 21일 “헬로키티와 함께 ‘헬로 서머(hello summer)’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오는 23일까지 본관 1층 광장에서 신세계 모바일 앱에서 행사 참여 쿠폰

푼을 다운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리오 캐릭터 인형뽑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 1명 당 1개 ID, 1개 쿠폰만 이용 가능하며, 쿠폰당 최대 3회까지 인형뽑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신세계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 항목을 통해 참여권을 다운받고, 쿠폰함과 소뽕 순으로 선택해 참여권을 확인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